

“신뢰받는 종단 도약...현대사회에 알맞은 규범”

승가청규 의미와 내용



지난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승가청규’ 고불식에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스님과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이 청규를 봉정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종단이 청정승가 구현과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상 확립을 위해 지난 8일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승가청규’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 종단 승가청규는 선원 수좌 스님들은 물론 종단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종단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종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또 종단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100인 대중공사와 세미나 등을 통해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 온 그 결과물로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수행 생명 평화 나눔 문화 등 5개 분야와 실천규범 6개항

“청정승가로 거듭나는 계기 모두 실천하며 모범보여야”

그동안 종단은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청규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2012년 ‘백양사 승풍 실추사건’ 이후 종단 쇄신 여론이 일면서 종단쇄신위원회 산하에 청규 제정위원회가 구성돼 청규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013년 6월 종단쇄신위가 승가청규를 의결하고 2014년 청규제정위원회가 ‘승가청규’를 성안해 제출했지만 청규에 대한 이견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돼 발표가 미뤄져왔다. 이후 지난 4월 ‘종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4차 100인 대중공사에

서 논의하고, 4차 대중공사 후속조치와 지난 6월 교육원이 주최한 현대사회 승가청규 세미나 등을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그리고 논의를 거쳐 마침내 승가청규 종단본을 확정하고 이날 고불식을 갖게 됐다.

청규는 수행, 생명, 평화, 나눔,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지켜야 할 내용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규범 등 총 6개항으로 구성됐다. 수행의 장은 간경과 참선, 염불, 진언 등 수행과 소욕지족의 단순 소박한 삶의 생활화, 나누고 감사하고 회향하는 삶을 생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명의 장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 보호하고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조건을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비폭력,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화의 장에는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행동에 앞장서는 삶, 전쟁반대를 넘어 평화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삶, 진실과 화해와 자비의 실천인 비폭력 평화 행동에 앞장서는 삶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나눔의 장에는 나누는 삶의 생활화, 보시와 재능기부, 생명나눔의 삶의 생활화, 문화의 장에는 승가청규를 읽고 실천하는 삶, 대중공사 문화 가꾸는 삶의 생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의식주와 소유, 소비, 의례와 의식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도 청규에 포함됐다. 의복은 절기에 맞춰 필요한 수량만큼 소유하고, 사치스러운 옷감을 피하도록 했다. 또 고가의 등산화, 운동화의 착용도 삼가도록 했다. 식생활 역시 승가 전통적인 방식의 식생활을 하도록 했으며, 질병과 요양 등이 아니면 육식을 삼가도록 했다. 또 수행자의 품격에

맞지 않는 고급 음식점 출입을 제한했으며, 고급 차(茶)와 고급 과일 등 수행자의 위예에 맞지 않는 고가의 음식도 삼가도록 했다.

자동차와 영상, 음향기기 등 승가의 소비문화에 대한 내용들도 청규에 담겼다. 자동차의 경우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차의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목적에 적당한 규모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했다. 사후 재산은 종단에 귀속하도록 했으며, 개인과 공용 소유물을 엄격하게 구분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매월 일정액을 대중과 사회를 위해 환원토록 했다. 이밖에 도 행사는 가급적 검소하게 치르고, 장례는 종단의 법계에 따라 검박하고 여법하게 하도록 했다. 부도와 비서 역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간소하게 하도록 하는 등 의례와 의식에 관한 내용들도 청규에 수록됐다.

종단쇄신위원회를 이끌었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밑은스님은 “현대사회와 승가의 현실에 알맞은 규범인 청규는 승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경받는 승가,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승가청규를 통해 이 땅에 청정한 승가의 전통과 이념을 전승하고 구현하는 소중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계종 승가청규의 제정을 통해 승풍이 진작되고 수행가풍이 되살아나길 간절히 염원한다”면서 “일상에서 승가청규를 규범으로 삼아 스스로 생각을 돌이켜 심성을 정화하며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승가청규제정위원 경성스님(해인총림 해인사 율주)은 “옛 청규를 기본으로 삼고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보다 더 수행자다운 삶으로, 원래 출가의 정신을 각인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승가청규를 제정하게 됐

다”면서 “출가해서 익힌 <초발심자경문> 자체가 청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 우리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점검하는 게 청규인 만큼 앞장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가청규 제정에 대해 종단의 주요 스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청규에 따른 삶을 통해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길 서원했다.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승가의 현실에 걸맞는 청규를 만들어 부처님 제자로서 승가가 화합하고 불법을 실천하는 승가의 진면목을 되찾기 위한 수승한 약속이라고 보여진다”며 “제야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규약도 대중이 존중하면서 준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만큼 모두가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율주 수진스님은 “부처님께서 2700년 전에 제정하셨던 율법의 정신대로 살면 21세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며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변화된 청규가 필요하다”면서 “율법과 청규 모두가 부처님 법대로, 출가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인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 옥련선원 주지 일오스님(비구니)은 “정당한 물 한 방울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이, 승가대중 한 사람 한 사람, 승가청규를 바로 알고 몸이 지니고 실천한다면 청정승가를 이뤄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불교종단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며 “모든 대중들이 숙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번 승가청규가 제대로 널리 퍼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교리 실력도 겨루고 문화 체험해 즐거운 제7회 나란다축제

전국 5000여명 참여 성황 ‘전통예술경연대회’ 첫 선 전주예고 강태훈 대상 영예



지난 5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전통문화체험마당에서 전통악기인 소고를 두들기며 즐거워하는 참가자들(왼쪽)과 제1회 ‘은정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 수상자들과 심사위원들.



지난해보다 풍성한 문화체험마당은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매듭공예, 손세정제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양말인형, 죽간만들기, 일꽃만들기 등의 체험부스에는 학생들로 가득 찼다. 이밖에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한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청소년 국악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은정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 대상은 전주예술고등학교 3학년 강태훈 군에게 돌아갔다. 거문고를 배운지 2년 만에 큰 상을 받게 된 강 군은 열렬히 기쁘다는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 열심히 연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전통예술경연대회에는 성악, 기악, 무용, 타악 등 4개 분야에서 8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해 발군의 실력을 뽐냈다. 심사위원도 쟁쟁했다. 안숙선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을 비롯해 이광수 민족음악원 이사장, 최병삼 국립국악원 악장, 박상진·한상일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최정림 전 정동국장장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심사를 맡았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제7회 나란다축제가 전국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5일 서울 동국대를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열린 나란다축제에는 불교교리경시대외 외에도 전통문화체험마당,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이 진행됐다. 이튿날인 6일에는 전국 37곳 군청에서 2000여 군장병이 참가한 불교교리경시대외가 열렸다.

지난 5일 초등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한

창인 동국대 체육관. 참가한 200여 명의 초등학생 외에 응원객들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아이들, 20여 개의 문제를 풀자 어느새 10명의 학생만 남았다. 모두 장려상 수상까지는 확실해진 아이들이다. 팽팽한 실력을 겨루는 가운데 “부처님께 올리는 약속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면서 답이 갈렸다. 다수의 아이들이 ‘참화’를 적은 가운데, ‘오계’라고 쓴

학생이 2명, ‘발원’이라고 쓴 학생이 1명이다. 사회자가 정답을 외치자 ‘발원’을 쓴 아이의 보드판이 흔들렸다.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주인공은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온 김지현(대곡초 5)학생이다. 올해로 3번째 참석이라는 김 군은 2번의 장려상 수상 끝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 군은 “어려운 문제를 예상해서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쉬웠다”며 “대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어머니 이주화 씨는 “아이가 3

학년 때부터 나란다축제에 참여했는데 올해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우수상 1명과 장려상 3명 등을 배출한 한국 불교대관음악사 칠곡도광도 잔치 분위기였다.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심화반과 기초반으로 나눠 초등학생들이 함께 교리공부를 했다고 한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진형(대구 칠곡 가산초 5)양을 비롯한 수상자들은 내년에 더 분발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불

장안사 원효창건 1342주년

개산문화축제

행

하늘 높푸르고 가을꽃 향기 가득한 좋은 시절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불자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안사 원효창건 1342주년을 축하하고 일생을 화평과 무애정신으로 불국정토를 구현하기 위해 대중 교화에 힘썼던 원효 대사가께서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보급했던 백차(白茶)를 부활시켜 우리 전통의 차와 원효 대사의 민생 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장안사 원효창건 1342주년 개산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장안사에서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기2559년 9월 좋은 날
장안사 주지 정 오 합장



KBS 장안사 숲속음악회

일 시 2015년 9월 18일(금) 저녁 7시
장 소 장안사 특별무대
초청가수 조항조, 최진희 외
방 송 KBS 2TV 9월 20일(일)
오전 11시45분 ~ 오후 1시15분

주최 (사)장안음 발전위원회
주관 KBS 부산본부
협찬 ㉠천년고찰 장안사 (주)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 일시_ 불기2559(2015)년 10월 10일(토) 오후 2시 ~ 5시
- 장소_ 부산광역시 기장 장안사

인연을 향기롭게 세상을 향기롭게

시
순

1부 : 문화공연 오후 2시 ~ 3시
2부 : 법 요 식 오후 3시 ~ 3시 30분
3부 : 축하공연 오후 3시 30분 ~

주 최 천년고찰 원효성지 불광산 장안사
주 관 부산차인연합회, 장안사
특별후원 금정총림 범어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기장군불교연합회
후 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문화원, (사)장안음 발전위원회, 안평 청량사, 고촌 고불사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장안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음 장안로 482

문의_ 전화 (051)727-2393 전송 (051)727-2394

장안사 대웅전_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771호(2012년 8월 6일)